

2023년 기도와 절제의 날



우리는 인종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죄를 지었고,
인종차별 주의가 우리의 온전함을 빼앗아
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짐과
이해하는 마음과, 관계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들의 정책과 관행들을 바꾸어 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하여 우리들이 믿음의 투쟁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연합
여선교회